

12-26-2010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잠언 16:1-33

본문: 빌립보서 3:1-21

제목: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최종 목표

지난 2010 년은 한 마디로 거친 한 해였다. 수많은 지진들, 홍수, 폭설 화산폭발, 초대형 태풍들, 산사태들, 가뭄 등으로 점철된 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재난들로 인해 올해 한 해만 최소한 250,000 여명이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한 세대 동안에 일어났던 인명피해가 올해 한 해에 일어났으니 가히 죽음의 해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 자연재해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가 지난 40 년 간 태러공격공로 인해 죽은 수보다 많으니 가히 짐작이 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다: “큰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며, 기근과 역병과 무서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눅 21:11,25-28)

사도 바울은 이 혼란의 때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목표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다.

첫째로, 그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알기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유익을 모두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같은 죄인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던 것처럼 말이다.

둘째로, 그는 그의 믿음의 목표를 정하였을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고 몸소 행했다고 고백했다.

셋째로, 그가 그렇게 행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예수께서 받으신 모든 고난과 죽음의 본을 따르면서 마침내 그와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골 3:2-4)고 권면했다.

넷째로, 그는 겸손하게 자신이 그 부활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았으며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신 것들을 자신도 붙잡으려고 달리면서 앞만 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본다고 고백했다. 또한 그는 성도들의 믿음의 목표에 대하여 자신을 따라서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하며,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이며, 그들은 수치스런 영광을 추구하며,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지들’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최종 목표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며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키시는 영광스런 부활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말하는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영광스럽게 통치하기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모든 고난을 자신이 자원하여 받기를 원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며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딤후 2:12)고 권면했다. 그는 또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롬 8:17,18)고 권면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신 모든 고난들을 붙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는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빌 3:12,13)고 겸손한 고백을 하였으니 바로 이 마음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가 이 마음을 품었기에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빌 2:5-8)고 미리 권면했던 것이다.

그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편지할 때에도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딤후 2:13)라고 증거했으며,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면서 그리스도와 고난의 교제를 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6-18)고 위로했다.

그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낀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엡 1:17-20)라고 증거했다.

그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도 앞으로 나타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하여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감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고전 15:51-53)고 증거했다.

그렇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부활이었다. 그는 마침내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여 그의 상을 받게 된 것이다. 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고 성령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도 바울의 본을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스런 부활에 참여하지 않겠는가? 그는 믿음 장인 히브리서 11 장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고 증거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활의 날(휴거의 날)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12-26-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roverbs 16:1-33

Main scripture: Philippians 3:1-21

Subject: The final goal of Christian faith

“2010’s WORLD GONE WILD: QUAKES, FLOODS, and BLIZZARDS.” The year 2010 was the year the Earth struck back. Earthquakes, heat waves, floods, volcanoes, super typhoons, blizzards, landslides and droughts killed at least a quarter million people in 2010—the deadliest year in more than a generation. More people were killed worldwide by natural disasters this year than have been killed in terrorism attacks in the past 40 years combined.”

This information reminds us again of the word of Lord Jesus spoken to his disciples:

“And great earthquakes shall be in divers places, and famines, and pestilences; and fearful sights and great signs shall there be from heaven.... ²⁵And there shall be signs in the sun, and in the moon, and in the stars; and upon the earth distress of nations, with perplexity; the sea and the waves roaring; Men's hearts failing them for fear, and for looking after those things which are coming on the earth: for the powers of heaven shall be shaken. And then shall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a cloud with power and great glory. And when these things begin to come to pass, then look up, and lift up your heads; for your redemption draweth nigh. (Luke 21:11,25-28)

Apostle Paul testifies of the final goal of our faith:

Firstly, He emphasizes, his righteousness which is through the faith of Christ, and which is of God by faith. Therefore, to know Christ, he confessed, he has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do count them but dung, that he may win Christ, for Christ had forsaken him to win him, a sinner.

Secondly, He not only set the goal of faith, but also the action items in detail to pursue his faith. In other word, He may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being made comfortable unto his death.

Thirdly, He confessed, **‘he might attain unt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He wanted to follow the sample of sufferings and death of Christ unto the glorious resurrection at the end. For this, he encouraged the Colossians:

“Set your affection on things above, not on things on the earth. For ye are dead, and your life is hid with Christ in God. When Christ, who is our life, shall appear, then shall ye also appear with him in glory.”(Col. 3:2-4)

Fourthly, He was so humble to say ‘Not as though I had already attained, either were already perfect’ He only confessed, he followed after, if that he may apprehended of Christ Jesus; and this one thing he does, forgetting those which are behind, and reaching forth unto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 to press toward the mark for the prize of high calling of God in Christ Jesus. He warned of the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 whose end is destruction, whose God is their belly, and whose mind earthly things.

Finally, Apostle Paul finalized the final goal of Christian faith is to look for the Saviour, the Lord Jesus Christ which is coming from heaven, who shall change our vile body, that it may be fashioned like unto his glorious body. In other word, the resurrection which he mentions about is the first resurrection as the bride of Christ that is to be partaker of glorious ruling with Christ. He volunteered to take all kinds of sufferings attained by Christ to reign with him gloriously. Therefore he encouraged his spiritual son, Timothy: **“If we suffer, we shall also reign with him: if we deny him, he also will deny us:”(2Tim. 2:12)**

He also wrote to the saints in Rome to encourage them: **“And if children, then heirs; heirs of God, and joint-heirs with Christ; if so be that we suffer with him, that we may be also glorified together. For I reckon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which shall be revealed in us.”(Rom. 8:17,18)

Even though Apostle Paul had done best to participate in the glorious resurrection as the bride of Christ attaining all the sufferings of Christ, he made humble confession saying, **“Not as though I had already attained, either were already perfect: but I follow after, if that I may apprehend that for which also I am apprehended of Christ Jesus. Brethren, I count not myself to have apprehended: but this one thing I do, forgetting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and reaching forth unto those things which are before,”(Phil. 3:12,13)** His humble must be the one that we are supposed to have. This was the reason why he encouraged the Philippians in advance saying,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o, being in the form of God, thought it no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But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and took upon him the form of a servant, and was made in the likeness of men: And being found in fashion as a man, 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unto death, even the death of the cross. “(Phil. 2:5-8)**

When he wrote to Titus, the son of faith, he also testified: **“Looking for that blessed hope, and the glorious appearing of the great God and our Saviour Jesus Christ;”(Tit. 2:13)** He also send a comforting letter to the Thessalonians in the midst of persecution from the Jew because of evangelism saying, **“For the Lord himself sha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shall rise first: Then we which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shall we ever be with the Lord. Wherefore comfort one another with these words.”(1Thes. 4:16-18)**

He also testified to the Ephesians: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glory, may give unto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in the knowledge of him: The eyes of your understanding being enlightened; that ye may know what is the hope of his calling, and what the riches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in the saints, And what is the exceeding greatness of his power to us-ward who believe, according to the working of his mighty power, Which he wrought in Christ, when he raised him from the dead...”(Eph. 1:17-20)

He testified to the Corinthians of the resurrection of the saints: **“Behold, I shew you a mystery; We shall not all sleep, but we shall all be changed,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 for the trumpet shall sound, and the dead shall be raised incorruptible, and we shall be changed. For this corruptible must put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 “(1Cor. 15:51-53)**

Yes! The goal of faith for Apostle Paul was the only one that is the glorious resurrection as the bride of Christ. At last he participated in the sufferings of Christ unto death, and receives the prize. As he encouraged Galatians, as the Christ’s, what about crucifying the flesh with the affections with fullness of the Holy Ghost bringing forth the fruit of the Spirit to have glorious resurrection in the day of Christ following Apostle Paul? He also testified in Hebrew chapter 11, the chapter of faith of them that achieved the better resurrection saying, **“Others were tortured, not accepting deliverance; that they might obtain a better resurrection:”**

What about forgetting things behind sending out the year 2010 to run the race of faith taking up the cross toward the day of resurrection (The day of Rapture)?

Hallelujah!